



동방경제포럼의뉴스

몽골은 아태시장향 수출품 운송시 연해주 보스토치니항을 경유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미크루세프스끼 연해주 주지사와의 회담에서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밝혔다.(타스)

동방경제포럼 전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일련의 발언을 했다.

- 러시아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북한 사절단 방문을 기대한다.
- '보스호드' 시스템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중앙은행 허가를 받았다. (타스)

동방경제포럼 전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국 경제협력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타스)

동방경제포럼 문화행사인 '극동의 거리'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다. '극동의 거리' 전시회는 9월10일까지 진행된다. (리아 노보스찌)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극동관구 지방정부 대표 회의체와 유사한 극동 청소년 대표 회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극동 주지사들에게 관련 업무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리아 노보스찌)

수산업, 관광, 의료, 농업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러-일 쿠릴 섬 공동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무라야마 ROTOBO(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 회장이자 가와사끼 중공업 이사회 의장이 동방경제포럼 전날 밝혔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 철도청과 브릭스 신개발은행은 모스크바-카잔 고속철도 프로젝트 자금 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서명할 계획이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에서 추코트카 자치관구는 에너지 분야 '루스기드로' 공동프로젝트 관련 일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추코트카에서의 재생에너지원 확보 파일럿 프로젝트 론칭에 대한 것이다. (리아 노보스찌)

동방경제포럼과 '올림픽 순찰' 프로젝트 일환으로 레순 근대5종경기선수 외 갈스탄, 이사예프, 하이불라예프 유도선수들이 학생들과 만난다.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참가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과 포토 및 싸인 행사,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타스)

극동 소식

작물화물 환적 관련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 연해주 측은 자루비노 항 확장 공사를 할 계획이며, 관련 정부령에 메드베제프 총리가 서명했다. 화물 환적량은 연간 3천3백만5천톤에 달할 것이다. (리아 데이터)

극동 인적자원 개발청은 '극동 헥타르' 조치에 따라 제공된 땅에 주거용 집이 조성된 경우 사전에 재산권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타스)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조치 덕분에 극동에 이뤄진 총 외국투자 건수 중 중국 투자 건수가 30%를 차지한다고 오시포프 극동개발부 제 1차관이 밝혔다. 극동투자 확대를 위한 중국 투자자 지원센터는 중국 투자 참여 프로젝트 건수를 확실히 늘렸다고 오시포프가 말했다. (인테르팍스)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